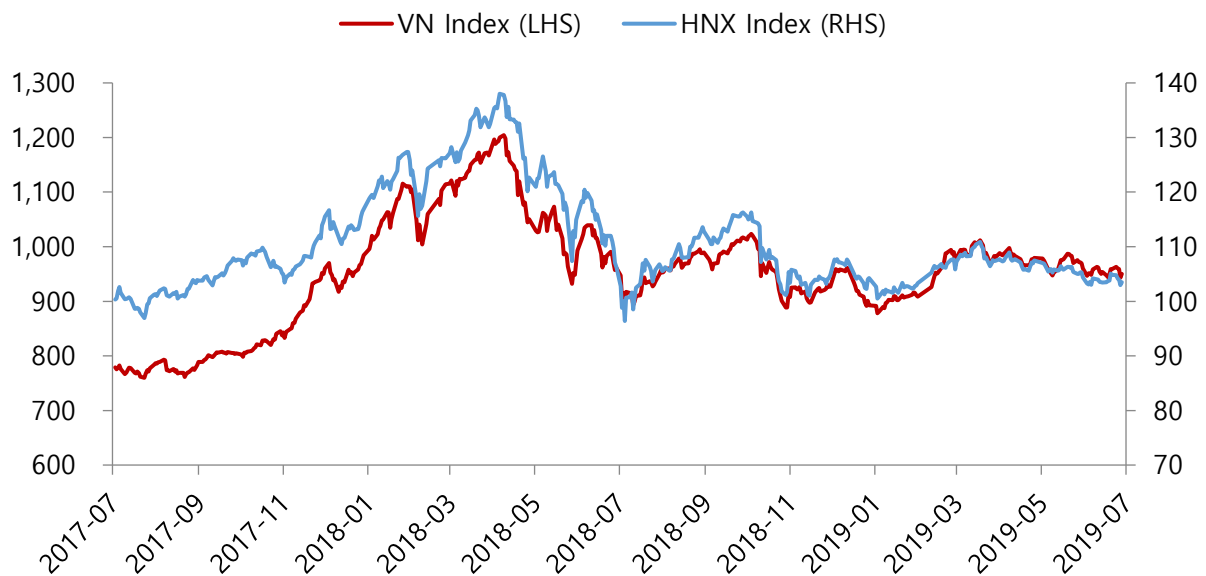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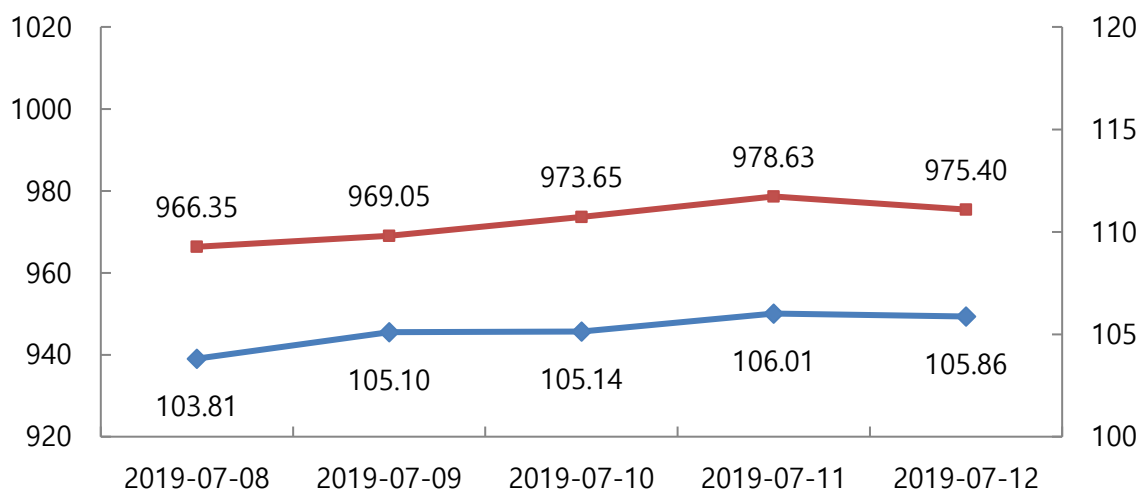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VN 지수는 08 일 966.35 로 전 영업일 대비 8.99 포인트(0.92%) 하락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대형주 효과로 회복세에 접어들어 12 일 975.40 으로 장을 마감했다. HNX 지수 역시 7 월 08 일 103.81 로 전 영업일 대비 0.57 포인트(0.55%) 하락했으나 09 일 105.10 으로 크게 상승하여 12 일 105.86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 개별 기업 뉴스

○ 비엠텔, 캄보디아에서 5G 서비스 시범 실시

베트남 기업 비엠텔과 현지 파트너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5G 시범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비엠텔 캄보디아(Metfone)은 캄보디아 국영 텔레콤 캄보디아와 이 기술을 시범 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달 중 시행하기 위해 5G 기지국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비엠텔이 캄보디아에서 5G 서비스를 시범 운용하기로 한 것은 베트남에서 첫 5G 통화가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비엠텔은 베트남 정보통신부로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5G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은 바 있다.

○ 빈그룹, 조종사 훈련 학교 설립: 항공 사업 진출 노린다

베트남의 최대 기업인 빈 그룹이 조종사와 항공인재 육성을 위해 캐나다의 CAE사와 협력한다. 빈 그룹과 CAE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VinAviation 고급 기술 인재 양성 학교와 Vin pearl 항공 비행 훈련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전자는 연간 400명의 조종사와 정비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후자는 조종사와 엔지니어를 위한 숙련도 검사 및 항공기 유형 등급 갱신, 업그레이드 또는 전환을 수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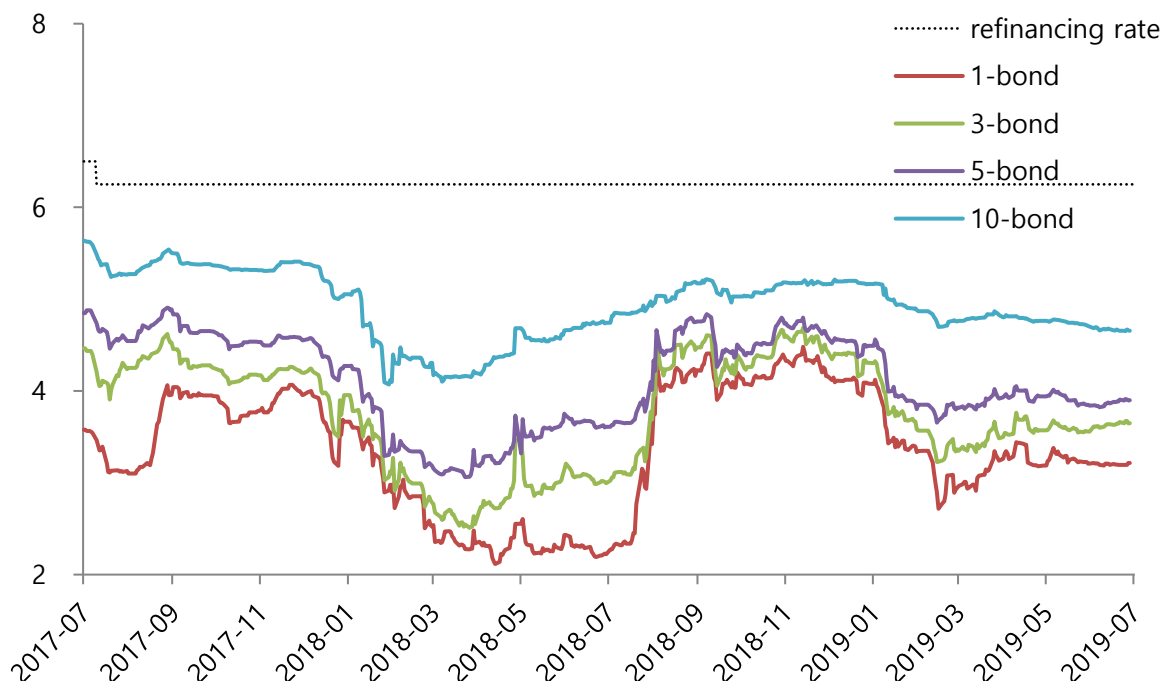
2. 주요 경제 동향

■ 베트남, 내년 최저 임금 5.5% 인상

노동계와 기업 대표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여, 국가 임금 의회는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률을 5.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은 모든 근로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의회는 밝혔다. 이번 제안은 올해 말에 확정되어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에 따라 월급은 160,000-230,000동(7-10달러)으로 인상될 것이다. 베트남은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2019년의 인상률은 5.3%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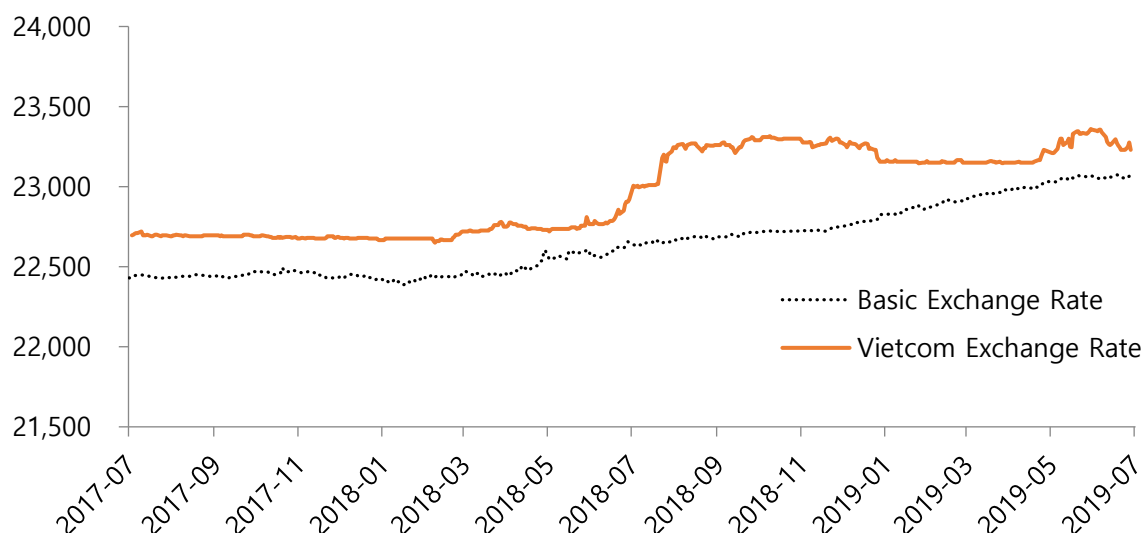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9-07-12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140	23,140	23,260



■ 비현금 지불 방식, 높은 성장세 기록

베트남의 비현금 지불 건수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현금 지불은 올해 초 발행된 결의안 02에 명시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은행들의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한 총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건수는 23.23%, 금액은 17.63% 증가했다. 3월 31일부터 온라인 결제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금액에 있어서 각각 65.81%, 13.46% 증가했고, 특히 이 기간 모바일 결제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금액에 있어서 각각 97.75%, 232%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베트남은 2008년부터 전자 결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9천5백만 인구의 약 40%만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시 지역인 반면, 휴대전화 가입자는 약 1억 2천만명에 달한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부동산 회사, 자본 조달 위해 채권 발행

베트남 국영 은행(SBV)이 최근 금융 기관의 부동산 대출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지시함에 따라 부동산 회사들과 개발업자들은 자본을 조달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채권 발행은 부동산 회사들이 더 많은 자본을 마련하고,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이들이 제시한 수익률은 통상 최고 연 12-14.5%로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의 두 배이다.

■ 하노이 동부, 신규 부동산 공급 주도

베트남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CBRE에 따르면, 하노이 동부는 올 상반기에 공급된 총 신규 물량의 80%를 차지하며 신규 부동산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CBRE 베트남 대표는 올해 첫 6개월동안 총 3,241채의 신규 물량 중 대부분은 1분기에 공급되었다고 밝혔다. 6개월 동안의 공급량은 작년 전체 공급량의 1.5배에 가까운 수치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한다고 대표는 말했다.

신규 공급과 더불어 시장 유동성 또한 좋은 실적을 보였다. 신규 공급량의 약 40%가 2분기에 판매되었고, 총 판매량은 6,900채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1차 시장 평균 가격은 평방미터당 1,337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수치이다.

5. 한국 기업 동향

■ LS 전선아시아, 베트남 자회사에 41 억 투자...MV 라인 증설

자산운용사들이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 호찌민 생산법인 LSCV(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에 약 41억원을 투자해 중전압(MV) 케이블 라인을 증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LSCV의 연간 생산능력은 현재 9300만달러에서 1억2000만달러로 29% 가량 증가한다. 베트남 MV 케이블 시장은 연간 2억5000만달러 규모다.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중심지인 호찌민의 전력 지중화 사업과 인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전력 케이블 시장이 연간 1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영일 LS전선아시아 대표는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져 지난해 4월 설비를 증설한 지 불과 1년 만에 추가 증설을 하게 됐다"며 "현재 베트남의 전기 보급률은 38%에 불과해 향후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에 2개의 생산법인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 전력케이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http://news1.kr/articles/?3666731>)

■ 한투신운용, 베트남 운용사 인수...연내 현지법인 설립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베트남 현지 자산운용사를 인수했다. 국내와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를 통과하면 연내 베트남 현지 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일 베트남 현지운용사 '형비엣 펀드 매니지먼트 조인트스탁 컴퍼니(hung viet·이하 형비엣)' 지분을 10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금융위원회와 베트남 증권위원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양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기존 목표대로 올해 안에 법인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06년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를 개소한 뒤 베트남 시장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가 운용하는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 펀드는 운용규모 8,500억원을 넘어설 만큼 성장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기존 리서치 중심의 역할을 확장하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해 현지 리테일(개인고객)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 운용사 인수에 나선 곳은 피데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두 곳이다. 앞서 피데스자산운용은 베트남 자산운용사인 '탕롱 펀드매니지먼트'의 지분 51%를 인수한 바 있다.

(More

information: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9071016013373586)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jiho@jplawvn.com +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